



### 종교의 폐해(弊害)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개념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업보를 받아야 하며,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인간들이 스스로 지은 선악에 따라 그 값음이 따라오는데 왜 종교를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간다. 기독교는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종교다.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이 되겠다는 순간 모든 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인간들이 힘들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길거리에는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란 현수막을 쳐 놓고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중세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은 성지 회복이란 명분으로 일명 십자군 전쟁을 벌여 많은 인명의 피해를 주었지만, 승리하지 못했으며 기독교의 부패에서 비롯된 면죄부는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으며 종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낙담을 미끼로 인간을 종교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전도하여 천당과 지옥의 내세를 무조건 믿고 따르게 한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을 꺼린다.

조직과 경전 그리고 통일된 의식이란 구조의 종교가 가지는 폐해를 살펴보자. 먼저 종교 조직은 특정 지도자들의 권력이 되고, 이 권력은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몇몇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거대한 공룡처럼 비대해진 한국의 개신교는 국교나 다름없는 특권을 누리며 정치권력도 움지인다. 또 조직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타 종교를 폄하하고 공격하여 종교 간, 국민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불교 역시 거대한 조직과 엄청난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불경에 기록된 부처의 가르침을 어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 끊임없이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힘을 빌려 경전에 어긋나는 그 어떤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개인이 가지는 정체성과 그 나라의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종교의 경전이란 특정 신격의 우월성을 극대화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 만든 특정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책이다. 그들은 이렇게 몇 사람에게 의하여 기록된 경전을 통하여 타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

키고 사상을 동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 종교는 경전을 통하여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경전 안으로 구속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전은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기존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구속하여 종교의 노예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설책 같은 경전에 집착하여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들의 현실이다. 경전을 들먹이며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살생을 부추기며 온갖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경전에 얽매어 그 종교가 추구하는 사상을 오역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뿌리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전의 자위적인 기록과 해석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 최고신의 명칭도 각각 다르다. 유대교는 '야훼' 기독교는 '예수' 이슬람교는 '알라'라고 하면서 타 종교의 최고신들을 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였다.

우리의 민족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3대 민족종교라고 하면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민족종교가 3개나 있다는 것도 웃기는 현상이다. 이 종교들은 모두 발생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19세기로 비슷하다. 그러나 다 같은 민족종교라고 하면서 모시는 절대 신명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또 서로의 신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천도교는 '한얼님' 증산교는 '상제님' 대종교는 '한배감'으로 부르고 있으니 과연 이들 종교가 민족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이 간다.

종교는 불확실한 내세관을 팔아 성공한 사기극을 펼치면서 발전해왔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부적으로 양심이 있으며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변질한 종교는 사기극을 벌여 인간을 그 안에 머물게 하고 종교의 본연의 뜻에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포싱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라며

신용진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사

기고



보이스피싱은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하였고 현재까지 다양하게 진화된 형태로 우리 서민·소상공인들의 지갑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사기·전세사기 등 금융·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인 형태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7대 사기 범죄를 '악성사기'로 신개념화하고, 대대적으로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등 서민·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포싱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흔한 양상을 띄는 범죄가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유형은 과거와 다르게 한층 더 진화된 수법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다가와 연령·계층과 상관없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포싱 발신 전화번호는 '070' 등으로 시작하였고 이를 수신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하여 '010'이나 '061', '062' 등 일반 지역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서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발신자로부터 개인·금융통신 정보 공개 및 불특정 앱(APP) 설치 유도 등을 요구 받으면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T전화', '후후', '후스콜' 등 스펠처단 앱을 설치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예방하고 보이스포싱 발신번호를 공유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최근에는 환율 상승·금리 인상 등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금리 대출 안내·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관련 피싱으로 다수 서민들에게 접근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주요 수법으로는 저금리 대출 상담을 미끼로 대출 신청서 파일 작성 및 인터넷 주소(URL)를 통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등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편취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 서민생활안심지원금 등 적절한 용어를 쓰면서 저금리 대출신청을 유도하며 문자 수신 당일까지 신청기간을 마감한다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속하게 한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금융·공공기관,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전화·문자를 통해 요청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수법도 있다. 이런 수법들로 인해 대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통한 악성 앱 설치, 신분증 사본·계좌번호·신용카드 등 개인·금융정보들을 제공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휴대폰 원격조작으로 인한 계좌이체 등으로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위 전화·문자내용을 수신하면 개인·금융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저금리 대출신청·택배 배송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가 오면 해당 금융기관·택배회사에 직접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포싱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가지게 되는 악질 사기범죄이다.

우리 모두가 보이스포싱 수법과 피해예방법을 숙지하고, 내 주변에도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등 더 이상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포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b>호남신문 i-honam.com</b>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b>			
<b>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b>		<b>(061) 905-2011</b>	
<b>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전용 (062) 228-2580</b>	
<b>팩스 (062) 222-5547</b>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신오복 무안소방서 생활구조구급팀장

기고

119구급대원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언이 64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음주 상태의 폭행 사건은 86%에 달한다.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해 관련기관에서 수사중이며 엄중 조치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설치 CCTV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상황실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 전송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 장치 설치 등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구급대원이 안전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정착하여 시민과 가족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